



남자 청소년쉼터

대화하고 싶을때...

힘이 들때...

손 잡아줄게~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Contents

성남시남자청소년쉼터 (남자단기, 중장기청소년쉼터)

쉼터소개 -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 03 인사말 (단기청소년쉼터 소장 박성진)
- 04 법인연혁 및 시설현황
- 06 쉼터소개
- 07 직원현황 및 운영현황
- 09 아·지·트 운영현황
- 11 사진갤러리
- 18 푸름이들의 이야기
- 20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 22 쉼터 선생님 이야기
- 24 쉼터후원현황

Dream Up!

쉼터소개 -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 20 프로그램 소개 및 활동사진
- 26 쉼터소개 및 직원현황
- 27 청소년쉼터 운영현황
- 28 사진갤러리
- 33 희망이들의 이야기
- 36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 38 쉼터 선생님 이야기
- 39 쉼터후원현황



인사말



"청소년 쉼터란 어떤 곳인가요?"



아직도 길거리 거리상담을 하다보면 청소년들과 일반 성인분들이 물어보곤 하십니다.

"청소년 쉼터가 어떤 곳인가요? 쉬는 곳인가요?"

길거리 거리상담은 거리 노숙청소년 및 배회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기 개입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과 일반 성인분들에게 청소년쉼터가 어떤 곳이며 무엇을 위해 있는 곳인지를 먼저 알려야 하는 숙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느낍니다.

청소년쉼터는 그동안 사회전반에 걸쳐 매우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의 중심에 서서 갈피를 잡지 못하며, 유해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족해체와 학교부적응 등에서 비롯되는 청소년들의 가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부모와 가정의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할 시기에 집을 나와 거리에서 방황하며,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는 2017년부터 미션과 비전을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세웠습니다.

바로 "가치, 성장, 소통 하는 쉼터로써 비행예방과 학업, 진로탐색을 통한 자립을 중점적으로 한 청소년쉼터"입니다. 가출 및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은 서비스지원을 하고 있지만 특히 위에 3가지에 있어서 특화된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과 쉼터에 매개체 역할을 할 이동형 아웃리치(아지트)를 통한 연계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과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검정고시 공부방 운영과 향후 학력인정 대안학교 운영을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진로컨설팅 및 청소년 진로관련 욕구조사를 통한 직업군 탐색 및 체험과 지역사회자원으로의 연계를 통한 취업 및 자립까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성남시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남자) 사회복지사들은 앞으로 밝은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을 지도, 상담 하는데 있어서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가고, 관심을 가져주며, 유해환경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및 위기청소년들의 "마지막 따뜻한 보금자리"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가출 및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을 한해도 청소년쉼터와 가출 및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애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많은 후원자, 자원봉사자, 운영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소장 박성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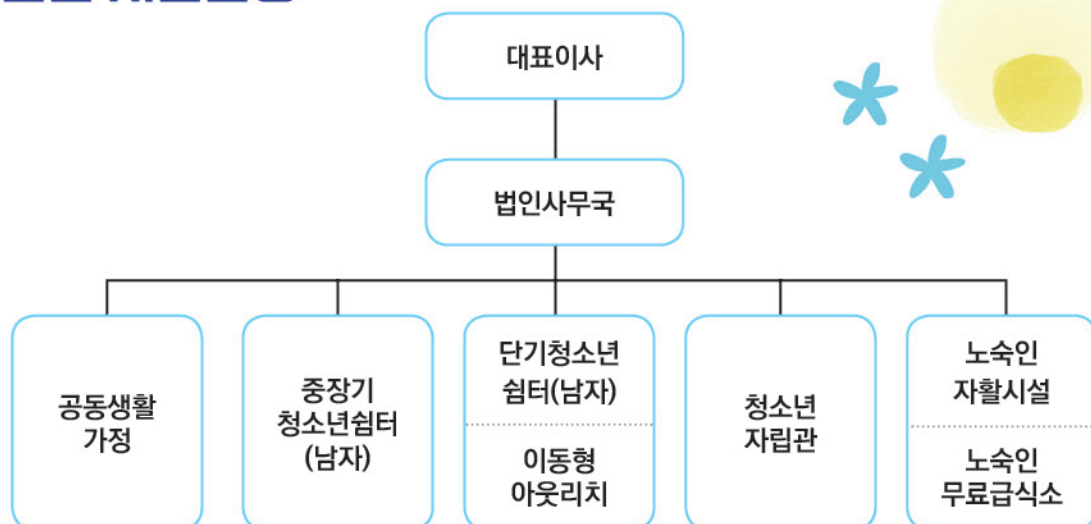


■ 법인 연혁

1998. 07	노숙인 급식소 설립
11	하대원102번지 이전
12	노숙청소년자활 프로그램실시
1999. 02	운영위원회 발족
03	노숙인자활프로그램실시
2002. 01	노숙인 쉼터 설립
03	난독증 홍보활동 발족
07	개원4주년 기념행사
2003. 01	수원교구 인준
03	노숙인 거리상담팀 조직
2004. 07	노숙청소년 자활프로그램 실시
11	아동그룹홈 건물매입
2005. 11	청소년 거리축제 실시
08	개원6주년기념축제
2005. 11	청소년봉사단어울림발대식
11	아동그룹홈시설인가 취득
2006. 01	천사의집과 기관 협력식
0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03	성매매근절 캠페인
04	청소년쉼터 설립
07	푸른청소년쉼터 위탁
11	청소년쉼터개보수확장

2006. 11	제1회 난독증 국제세미나
2007. 04	난독증 부모교육
07	류희구신부 쉼터 발령
10	청소년자립관이전(지하→1층)
10	푸른청소년쉼터 오픈하우스행사
11	푸른청소년쉼터 확장보수
01-12	난독증부모교육 실시
2008. 06	아동그룹홈 리모델링 입주
12	안나의 집 신축 개관식
2009. 06	안나의 집 자선음악회
2011. 10	성남시청소년중앙기침터 위탁
2012. 04	노숙인 자활사업 실시
2015. 04	15주년 기념 자선음악회
07	노숙인 자활시설개소(쉼터)
2016.02	청소년 문화교실 개방
	청소년 이동형 거리상담사업 개시
04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이동상담버스 'A지T' 개소식
07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동급식소 '밥묵차' 사업실시
	이동상담버스 'A지T'
	1주년 기념 행사

■ 법인 시설현황



성남시 단기
청소년 수터
(남자)



청소년심터 소개

성남시단기청소년심터(남자)

■ 심터란?

가족 내 갈등, 폭력, 방임,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기능 상실, 학교부적응, 개인 및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시 및 단기 보호를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전문적 개입을 실시하여 위기청소년과 가족을 돕고,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 설립 및 운영주체

설 립 : 2006년 7월1일 성남시단기청소년심터(남자) 설립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 연혁

- 2006 07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심터 위탁사업 실시
- 11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심터 개보수 확장
- 2007 08 “내일을 향해 걷는다” 국토순례 실시
- 10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심터 거리상담 사업실시
- 11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심터 확장보수
- 2008 07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심터 재위탁
- 11 “나를 찾아 희망을 찾아” 멘토링프로그램 실시
- 2009 10 “푸름이들의 희망찾기” 지리산둘레길 걷기 실시
- 11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심터 리모델링
- 2010 03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심터 운영위원회 발족
- 10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 금연학교 실시
- 11 “미래를 향해 열린 문” 역사이론체험교실 실시
- 2011 05 한국 GM 한마음 재단 스파크 차량기증
- 06 “해상왕 장보고의 꿈을 쫓아서” 중국탐방 실시
- 06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심터 재위탁
- 2012 03 사랑의 열매 & 두산기업 공동지원 “공부방 운영사업” 선정
- 08 “보고 듣고 즐기는 우리의 전통문화” 한국전통문화체험학교 실시
- 2013 05 “푸름이들의 희망교실” 검정고시 대비 공부방 운영
- 2014 11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심터 시설 개보수
- 2015 07 이동형 아웃리치 “아지트” 활동 실시
- 2016 06 성남시단기청소년심터(남자) 재위탁
- 07 이동형 아웃리치 “아지트” 운영비 지원
- 08 여성가족부 청소년심터 평가
- 11 ‘열려라 나눔아! 피어라 희망아!’ 한미약품 지정기탁사업 선정



■ 직원현황

이름	직위	업무
박성진	소장	기관 총괄·대외협력·인사관리·후원개발
최지엽	팀장	프로그램개발·상담·실적관리
오금석	주임	이동형 아웃리치 총괄
박수현	주임	프로그램 및 봉사자관리
강병선	주임	사례관리 및 시설관리
박진영	행정원	회계 및 후원관리
이형인	청소년상담사	상담 및 사례관리
안성태	사회복지사	이동형 아웃리치 활동
전창현	사회복지사	활동지원·홈페이지관리·상담
김성율	사회복지사	교육·활동지원 및 야간생활지도
엄상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및 야간생활지도
배인서	사회복지사	이동형 아웃리치 활동
문보윤	사회복지사	이동형 아웃리치 활동
박준영	상담사	이동형 아웃리치 활동
김미애	취사원	입소생 식사관리

■ 2016년 청소년쉼터 운영현황

사례 수

(단위: 명)

구분	입소생	합계
진행 사례수(실인원)	133	133
신규등록 사례수	118	118
연인원 사례수	4,473	4,473

입소연령

(단위: 명)

구분	남자				합계
	13세 이하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	24	49	60	133

보호기간별 입소청소년 현황

(단위: 명)

구분	보호기간					합계
	15일미만	15일~30일	31일~90일	91일~180일	180일초과	
	72	9	35	8	9	133

사후관리

(단위: 명)

구분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서신상담	합계
	56	205	104	2	367

퇴소현황

(단위: 명)

구분	퇴소사유											합계
	가정 및 학교복귀	아동시설 의뢰	기타시설 의뢰	보호기간 만료	대안학교 입학	취업 알선	무단 이탈	자의 퇴소	무단 퇴소	기타	미분류	
합계	33	-	21	-	-	24	1	24	17	1	-	121

상담지원현황

(단위: 명)

구분	처리유형				개입방법						합계
	단독	협의	위탁	미분류	개인 상담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심리 검사	서신 상담	지원 서비스	
본인 (청소년)	20,896	381	1	0	1,565	136	92	35	1	19,449	21,278
학부모	106	7	0	0	20	91	0	0	2	0	113
부모외 가족	12	1	0	0	0	13	0	0	0	0	13
지도자	483	46	1	0	19	501	10	0	0	0	530
일반인	752	48	0	0	64	665	71	0	0	0	800
합계	22,249	483	2	0	1,668	1,406	173	35	3	19,449	22,734



■ 2016년 아·지·트 운영현황

사업수행 지역 및 일정

활동 지역	야탑역 1번출구	양지동 주민센터앞	경기광주 청석공원	신흥역 3번출구
활동 일정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활동 시간	18시~01시	18시30분 ~22시30분	18시~01시	18시~01시

사업수행내용

생활지원 및 보호사업	- 식사, 기초생활물품, 일시적인 보호 및 쉼터연계 지원.
상담·정서 및 의료지원 사업	- ‘아·지·트’를 찾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문제 상황들에 대한 공감 및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원 제공 - 질병에 대한 진료상담 및 응급병원연계, 치료 제공
청소년활동프로그램	-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으로 - 성교육 및 기타 약물교육 진행
가출예방활동사업	- 주4회 거리 배회청소년들을 대상으로 patrol 활동 가출예방 캠페인 월1회 실시(연합아웃리치)

상담지원현황

(단위: 명)

구분	이용 청소년	접촉 청소년 (파트rol 및 홍보)	계
2016년	5,843	8,402	14,245

연령별 이용 청소년 현황

(단위: 명)

구분	13세 이하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계
2016년	276	1,543	3,726	298	5,843

이용 청소년 상태

(단위: 명)

구분	가출청소년	배회청소년 (전환형/ 가출경험유)	비가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계
2016년	61	977	4,591	214	5,843

가출 및 위기청소년 조치사항

(단위: 명)

구분	귀가	일시보호	보호시설 연계		아지트 서비스제공	계
			타 시설 연계	쉼터 입소		
2016년	2	1	5	3	50	61

이용 청소년 상태

(단위: 명)

서비스 제공 실적	먹거리	피복류	위생용품	보드게임	휴대폰 충전	게임기	의료	홍보 물품
	19,136	18	35	1,805	828	95	133	10,492
	상담	심리검사	휴식	이미용 식사 쿠폰	특성화 교육	활동 프로그램	사례관리	귀가지원
	365	34	2	17	235	371	21	22



■ 쉼터 내·외부 모습



쉼터전경



거실



상담실



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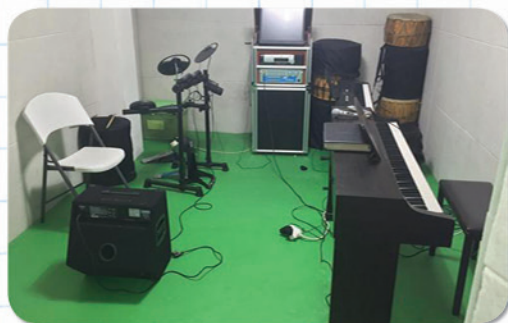
프로그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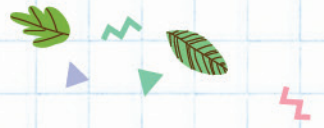
헬스장



활동실



정서지원



공예활동



심리검사



요가



개별상담



음악활동



■ 문화·교류활동



민속촌체험



카누체험



다이나믹 메이즈



짚라인



농구



승마



낙시



풋살

수련활동



춘계캠프(가평)



하계캠프(단양)



추계캠프(전북)



동계캠프(제주도)

직업체험



반지공예



캘리그래피



조향사



반려동물사

■ 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



검정고시공부방



국사



진로교육



독서교실



청소년 비전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 아지트 버스 및 활동 사진



버스 외부



버스 내부



보드게임



일반 상담



파트rol 활동



해변 아웃리치



1주년 행사



할로윈 축제

■ 센터 동정



직원교육(슈퍼비전)



자원봉사자간담회



장학금 연계



운영위원회



따·세·만 요리만들기



입소생 생일파티

[푸름이들의 이야기 1]

2016 계곡나들이 소감문

이름 : 오○○

작성일 : 2016.07.28

쉼터에서 선생님과 아이들과 함께 계곡나들이를 다녀왔다. 오전 쉼터에서 출발한 후, 성당에 가서 신부님, 선생님들과 인사한 후 차를 타고 출발하였다.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동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일까, 대화 도중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계곡에 도착하였다. 수영복을 입고 샌들을 갈아 신은 후, 평상에 앉았다. 계곡이 넓긴 했지만 수심이 낮아 보였다. 계곡과 산의 경치를 바라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 물놀이 전에 안전을 위하여 준비 운동을 하였고, 물속에 들어가 물놀이를 시작하였다. 물속에서 놀다가 추워지면 평상으로 돌아와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다. 닭볶음탕과 갈비가 메뉴였는데 참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기도를 하고 다같이 식사를 하며 먹는 밥맛은 꿀맛이었다. 식사 후 다시 오후 물놀이를 시작하였다. 오전과 달리 물이 정말 차갑게 느껴졌다. 튜브도 타고 수중 게임도 하며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아이들과 신나게 물놀이를 한 후 간식으로 먹은 수박의 달콤함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평상에 앉아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산의 경치를 바라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다. 오후 네 시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물이 차가워서 계곡보다 수영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즐거운 하루였다. 이런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준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도 입소 청소년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푸름이들의 이야기 2]

2016 춘계소풍 소감문

이름 : 노○○

작성일 : 2016.05.10

오늘 춘계소풍으로 양평 두물머리 산책로 청평레저수상 체험을 다녀왔다. 두물머리에서 산과 호수, 나무, 꽃을 관광하고 경치를 감상하였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움이 느껴졌다. 두물머리에서 먹은 연잎 핫도그는 정말 맛있었다. 다음에 오면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 메뉴인 닭갈비와 막국수도 최고였다. 닭갈비를 처음 먹었지만 정말 맛있었고, 막국수의 시원하고 매콤 달콤한 맛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최고였다. 오후 수상 보트를 체험했는데 타기 전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막상 하고 나니 또 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재미있었다. 보트를 처음 타봐서 다리는 후들 후들 떨렸지만 체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보트를 탈 때는 무서움에 두 눈을 꼭 감았었는데 세 번째 보트를 탈 때에는 눈도 뜨고 경치로 감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맛있는 간식과 점심, 스릴 넘치는 체험이 함께했던 이번 소풍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준비해주신 선생님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푸름이들의 이야기 3]

문화활동 소감문

이름 : 이○○

작성일 : 2016.10.11

문화 활동으로 인사동 문화 체험을 하였다. 수제도장만들기와 테마 체험이 함께 한 이번 체험 정말 인상 깊었다. 수제도장만들기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도장이라는 점에서 기분이 좋았고, 도장을 직접 파는 과정이 정말 신기했다. 나무가 아닌 돌에 새긴다는 것이 신기했고, 나무와는 파는 느낌도 다르고 스케치 과정도 신기했다. 점심은 맛집으로 유명한 곳에서 오징어 불고기를 먹었다. 이후 '박물관이 살아있다' 테마 체험관에 갔는데 정말 인상적인 체험이었다. 미로 체험이 정말 재미있었고, 포복절도할 정도로 웃었던 시간이었다. 안보이는 미로, 행거미로, 개념을 버려야하는 미로, 거울미로, 퀴즈 미로, 기억 미로 등 많이 있었고 힘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각나는 것으로 보아 인상적인 체험이라 생각한다. 체험 후 시원한 바나나 스무디와 주스를 먹고 컴퓨터로 돌아왔다.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푸름이들의 이야기 2]

2016 춘계소풍 소감문

이름 : 노○○

작성일 : 2016.05.10

오늘 춘계소풍으로 양평 두물머리 산책로 청평레저수상 체험을 다녀왔다. 두물머리에서 산과 호수, 나무, 꽃을 관광하고 경치를 감상하였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움이 느껴졌다. 두물머리에서 먹은 연잎 핫도그는 정말 맛있었다. 다음에 오면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 메뉴인 닭갈비와 막국수도 최고였다.

닭갈비를 처음 먹었지만 정말 맛있었고, 막국수의 시원하고 매콤 달콤한 맛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최고였다. 오후 수상 보트를 체험했는데 타기 전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막상 하고 나니 또 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재미있었다. 보트를 처음 타봐서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지만 체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보트를 탈 때는 무서움에 두 눈을 꼭 감았었는데 세 번째 보트를 탈 때에는 눈도 뜨고 경치로 감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맛있는 간식과 점심, 스릴 넘치는 체험이 함께했던 이번 소풍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준비해주신 선생님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사회국사공부방 자원봉사자

김영주

처음에 쉼터 봉사를 시작한 것은 후배의 권유였다. 그때까지 쉼터가 있는지, 있어도 그게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이렇게 가깝게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을 돕게 되었지만 처음이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시행착오가 많았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낯설었다. 조금 익숙해지면서 슬슬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어졌다. 중·고등학교 역사와 사회과목 기초를 가르치기 위해 학원에서 쓰는 교재 중 시험 대비 때 쓰는 얇은 교재들을 모아 제본을 해서 수업을 해 보았다.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지만 두시간중 온전히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진도를 정해놓고 오늘은 여기까지는 해야지 하는 계획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몇 번 수업해보다가 사정상 잠시 쉬게 되면서 깨달은 것은 학원이나 학교에서와는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수업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자체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이였다. 굳이 진도에 집착하지 않고 수업시간에 대화도 하고 하면서 수업 시간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 더 중점을 두었다. 좀더 시간은 걸리지만 그게 더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신뢰관계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 심한 성장통을 겪는 아이들에게 수업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지만 아쉬운 점 또한 있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수업하는 교재나 학습지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이였다. 대체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교재나 학습지 같은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학기 초,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남학생들한테 매일같이 신신당부하는 것은 ‘제발 정리하는 것까진 안 바라니까 모아놓기라도 해라’였다.

아니나 다를까.... 매시간 하는 검정고시학습지는 파일 마련해서 날짜별로 묶어놔라 해도 몇 번 가지 못하고 잃어버리기 일쑤였다. 일정시간 정해놓고 복습하는 것까진 어려워도 정리를 잘 해놓으면 가끔씩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교재도 마찬가지로 분명 사물함이 있을텐데 잃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교재나 학습지를 좀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몇 년 동안 봉사하면서 이런 일을 같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수업도 필요하지만 세상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여러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결국 ‘소통의 부재’, ‘신뢰의 부재’가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는 점이였다. 일선 학교에서 봉사활동의 하나로 진행하는 ‘멘토-멘티’관계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성당에 있는 청년공동체에서 활동하면서 본당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고 청년들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생각이다. 1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청년들을 아이들의 멘토로 연결해 준다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서로간에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안에서 직접 일하는 입장이 아닌, 봉사자로서 보거나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도 꽤 오랫동안 드나들다보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본 생각이다.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과학공부방 자원봉사자
김현호

2016년 한 해 동안 가장 애착을 가진 단어는 ‘윤동주’입니다. 2007년에 여자 친구에게 선물 받은 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늘 머리맡에 두고 있었는데 2월에 영화 ‘동주’를 보면서 꼭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로 교토에 놀러가면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도시샤 대학이 있었고 경복궁 옆 서촌에 놀러가면 윤동주 시인의 하숙집 터가 있었습니다.

튼금없는 이야기지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되어 있는 시 중에 ‘쉽게 씌여진 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엉뚱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시를 볼 때 마다 ‘쉽게 하는 봉사’가 떠오릅니다. 윤동주 시인이 했던 고민에 비할 순 없지만 제가 하고 있는 봉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 가끔 생각합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봉사하러 간다면서 약속도 피하지만 봉사라고 하기에는 뭔가 놀이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 ‘봉사’라고 말하면 낯설게 느껴집니다. ‘헌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는 ‘봉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봉사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끄러운 느낌입니다. 다른 분들도 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겠지요?

쉽터와의 첫 인연은 일요일 밥 봉사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주말에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자신도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화요일 과학공부방 교습입니다. 헌혈을 오랫동안 하면서 ‘왜 헌혈인가?’에 대한 대답도 ‘지금 가장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어서.’입니다.

그러면 ‘봉사는 쉽게 하면 안되는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쉽게 하는 봉사는 가치가 작은 봉사인가?’라고 물어도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쉽게 하는 봉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저는 앞으로도 쉽게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쉽터에서 오래오래 과학공부방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자주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

시간에 여유가 없어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떠오르는 대로 적었습니다. 2016년 즐겁게 마무리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이야기]

한발 더 다가가면



엄상준 사회복지사

무뎀던 여름.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에 입사하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지 5개월이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드디어 첫눈이 펄펄 내렸다.

‘쉼터’라고 불리는 곳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던 나에게, 이곳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설렘과 동시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동반되었다.

내 아이들과 많이 다르지는 않을까..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주는 것일까.. 많은 생각 속에 고민하면서 지냈던 시간들..

력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생활지도는 처음 겪어보는 나로서는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다. 아이들을 내아이들처럼 보살피고 감싸주리라 생각하며 노력했지만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고 정해진 규칙속에 생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과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이곳에 근무하면서 나에게 있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하는 마음을 가져본다,

‘쉼터’의 문을 두드릴 때 밝은 모습을 한 아이들은 많지 않다. 어떤 이유에서건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화목하게 부모와 지내야 할 아이들이 집을 떠나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많은부분은 무책임한 부모들의 이혼, 그에 따른 가정파괴이다.

그 결과는 아이들을 희생자로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상처주고 멍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올바른 부모역할과 화목한 가정유지, 건전한 문화정착 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이 글을 계기로 그간 쉼터생활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언제 어디서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나이고 싶다.

또한 우리 ‘쉼터’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안식처로서 자리매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 드린다.

♡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

1월	정희정(10만원)/이경한(5만원)/박혜순(2만원)/신승우(2만원)	7월	박혜순(2만원)/김영숙(4만원)/(주)트라이포드(5만원)
2월	정희정(10만원)/성남전산회계학원(10만원)/경기도청(25만원)/이해림(5만원)/조성원(1만원)/박혜순(2만원)/종원구청소년수련관(2만원)	8월	윤영균베드로(5만원)/박지은(30만원)/박혜순(2만원)/김영숙(4만원)/(주)트라이포드(5만원)
3월	정희정(10만원)/박혜순(2만원)	9월	경기도청(25만원)/박혜순(2만원)/김영숙(4만원)/(주)트라이포드(5만원)
4월	정희정(10만원)/박혜순(2만원)/김영숙(4만원)	10월	박혜순(2만원)/김영숙(4만원)/(주)트라이포드(5만원)
5월	정희정(10만원)/박혜순(2만원)/김영숙(4만원)/지엠피주얼리(60만원)/삼일씨티에스(60만원)	11월	박혜순(2만원)/김영숙(4만원)/(주)트라이포드(5만원) 수원과학대신소재과(126,200원)/이혜선(100만원)
6월	SD시스템(100만원)/정희정(10만원)/에이투유정보통신(60만원)/박혜순(2만원)/김영숙(4만원)/(주)트라이포드(5만원)	12월	김병화(60만원)/법사랑분당(30만원)/박혜순(2만원)

♡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

1월	안해화(감귤 3박스)/안영신(물케익 2박스)/세종도서(도서 90권)
2월	이순자가가대(냉장고1대)/푸드머스(곰탕2박스)/성남시청디자인정책과(고기5만원상당)/성남시주민센터(사과,배1박스) 성남보호관찰소(라면1박스,쌀10kg 1포대)/코리안리재보험(쌀20kg 57포대)/성남시청(라면60개,컵라면60개,과자68봉)
3월	봉사자(쌀 10kg 4포대)/최성민(기타2대)
4월	빵사랑봉사회(양금빵401개)/미소앤에그(계란2판)/드림업(빵튀기4봉지)
5월	최성민(아이스크림 28개)/미소앤에그(계란2판)/김미애(피자5판)
6월	미소앤에그(계란2판)/원우회(감자2박스)
7월	원우회(비타500 2박스)/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습기1대)/코리안리재보험(쌀20kg 61포대)/진인환(소파) 성남키즈(빵13박스,음료1박스)
8월	이현주(주스1박스,초코파이1박스)/이영주(던킨도너츠1박스)/빵사랑봉사회(소보로빵 30개)/미소앤에그(계란2판) 성남키즈(빵2박스,쿠키2박스)
9월	조성자(빵2박스,요플레2박스)/삼일씨티에스(햄2박스,사과2박스,배2박스,김2박스)/분당주민센터(햄 2박스) 강두치(음료수1박스)/성남시청디자인정책과(라면1박스,휴지1팩,세탁세제)/빵사랑봉사회(브라우니20개)
10월	미르카페(생일케이크) / 따뜻한세상만들기(떡볶이떡 2봉)
11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반창고1통,CD10장)/이동윤할머니(비타5001박스)/어린이집(비타500 1박스)
12월	성남시청 쌀(10kg 10포대)

♡ 컴퓨터자원봉사자

김강래(수학공부방), 김영주(사회국가공부방), 송미나(보컬프로그램), 이경규(컴퓨터환경정비 지원), 이연옥(영어과외공부방), 조성자(공예프로그램), 주말식사준비(이정희,양유정,유숙현,이은숙), 김현호(과학공부방), 최신애(이미용지원), 최성민(기타프로그램)
김해주,김은정(독서프로그램), 최아름(요가프로그램), 이현주(미술심리검사 및 프로그램) / 이성은,이민상,이근숙,하미경,김정선,박정미,임형욱,문정희,윤혜영,김동령,조수경,정해옥,신민수,이수빈,박영미,권순기,조정현,원은총,사혜진,김리라/아웃리치

드림업



Dream UP!은 위기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전문가들과의 소통의 시간과 체험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구체화 해보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 수터
(남자)



청소년심터 소개

성남시중장기청소년심터(남자)

중장기 심터는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있어도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안정된 환경 안에서 학업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개별, 집단상담, 부족한 학습지원, 문화활동, 진로지도,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성이 함양된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설립 및 운영주체

설 립 : 2011년 10월 01일 성남시중장기청소년심터(남자) 위탁사업 실시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연혁



- 2011** 10 성남시중장기남자청소년심터 위탁사업 실시
- 2012** 02 심터 개소식
- 11 공부방 개보수, 확장 / 운영위원회 발족
- 2013** 04 사회적기업 자리(주) 교육 및 현장실습 협약 체결
- 10 성남시중장기남자청소년심터 재 위탁(3년)
- 2014** 01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 협약 체결
- 2015** 01 길벗한의원, 남서울치과 진료지원 협약 체결
- 03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 12 심터 내부개보수
- 2016** 06 기관명 변경 “성남시중장기청소년심터(남자)”
- 08 소아청소년상담센터 공감 상담지원 협약 체결 / 연세푸른 정신과의원 진료지원 협약 체결
- 09 2016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심터중간평가(2013~2015)
성남시중장기청소년심터(남자) 재 위탁(3년)
- 12 분당우리교회 차량지원사업 선정

직원현황

이 름	직 위	업 무
박주형	소 장	대외협력 및 총괄
정재용	주 임	운영실적, 홍보, 관공서아웃리치
장가람	주 임/청소년상담사	자원봉사관리, 상담업무, 길거리아웃리치
현미숙	행정원	회계 및 후원관리
오승윤	사회복지사	야간 생활지도, 문화활동, 안전교육
나병찬	사회복지사	야간 생활지도, 교류활동, 인권교육
안순희	취사원	입소생 식사관리

2016년 청소년쉼터 운영현황

사례 수

(단위: 명)

구분	입소생	합계
진행 사례수(실인원)	14	14
신규등록 사례수	7	7
연인원 사례수	3,078	3,078

입소연령

(단위: 명)

구분	남자				합계
	13세 이하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입소자	0	1	7	6	14
이용자	0	0	0	0	0
합계	0	1	7	6	14

보호기간별 입소청소년 현황

(단위: 명)

구분	보호기간					합계
	15일미만	15일~30일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입소자	0	2	1	0	11	14

사후관리

(단위: 명)

구분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서신상담	합계
합계	53	51	15	0	0	119

퇴소현황

(단위: 명)

구분	퇴소사유									합계
	가정 및 학교복귀	아동시설 의뢰	기타시설 의뢰	보호기간 만료	대안학교 입학	취업 알선	무단 이탈	무단 퇴소	사회복귀	
합계	1	0	1	0	0	0	0	0	7	9

상담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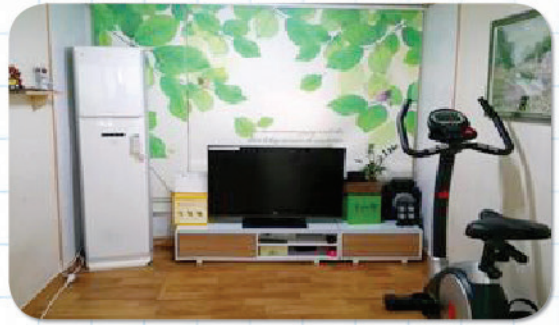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처리유형				개입방법					합계
	단독	협의	위탁	미분류	개인 상담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서신 상담	지원 서비스	
본인(청소년)	12,157	0	0	0	913	73	34	4	11,133	12,157
학부모	48	0	0	0	9	34	5	0	0	48
부모외 가족	9	0	0	0	2	7	0	0	0	9
지도자	315	0	0	0	114	195	6	0	0	315
일반인	129	0	0	0	41	81	4	0	3	129
합계	12,658	0	0	0	1,079	390	49	4	11,136	12,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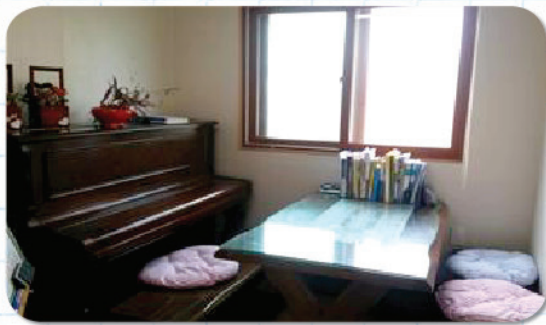
쉼터 내, 외부 모습



쉼터전경



거실



상담실



숙소



프로그램실



헬스장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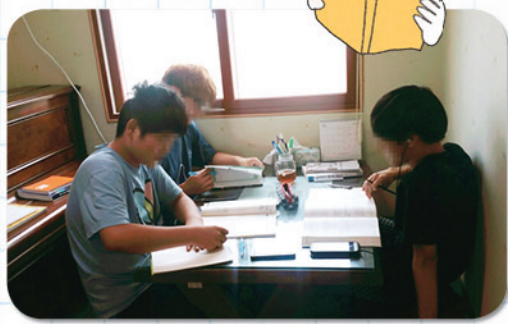


화장실

학습 및 교육프로그램



학습지도(과외)



자율학습



디퓨저만들기



냅킨파우치만들기



심폐소생술(CPR) 교육



인권교육(장애인인식개선)

직업체험



직업체험(목공DIY)



직업체험(바리스타)

문화·교류활동



문화활동(빙어낍시)



문화활동(벚꽃 축제)



문화활동(다산유적지 및 두물무리)



문화활동(로이터사진전)



교류활동(수상레저)



교류활동(필라테스&요가)



교류활동(헬스)



교류활동(스크린 야구)

수련활동



춘계소풍(캐리비언베이)



춘계소풍(캐리비언베이)



하계캠프(강원도 강릉)



하계캠프(강원도 강릉)



추계소풍(한강유람선)



추계소풍(남산타워)



동계캠프(제주도)



동계캠프(제주도)

쉼터동정



오리엔트 봉사단



입소생 봉사활동(아리움)



봉사자간담회



후원협약(우리은행)



장학금 연계



추석 이웃인사



여성가족부 평가준비



통합운영위원회

[희망이들의 이야기 1]

‘벚꽃 축제’를 다녀와서

한○○

이쁘고 아름다운 벚꽃이 나무에 피어서 많은 사진들도 찍고 벚꽃을 꺾어서 귀에 걸고 사진도 찍고 예쁜 벚꽃 길을 걸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봄에만 펴서 아쉽다. 꽃이 지기 전에 여자 친구랑 꼭 보고 싶다. 일생 처음 벚꽃 구경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자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

[희망이들의 이야기 2]

‘다산유적지 및 두물머리’를 다녀와서

김○○

다산유적지 : 선조들의 청백리 사상을 체험하고 올바른 준법, 공직사상을 갖게 해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와 묘소는 나의 청렴의식을 치ս게 해 준 곳이 아닌가 싶다. 나라의 부패를 꾸짖고 검소했던 다산 선생의 생활을 엿보며 철럼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두물머리 : 남한강과 북한강,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이곳의 수려한 풍경을 보며 넓이라고 있고 없고...연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세미원, 400년을 살아온 느티나무. 수 십년전 사람을 실어 나르던 나룻배를 보며 세월의 무게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넓을 잃게 되었다. 그 고즈넉한 풍경을 말없이 지켜다보니 나 자신도 모르게 근심을 놓아버린 것 같았다. 수면위에 비춰지는 모습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신비롭기까지 했다. 잊을 수 없을듯하다.

[희망이들의 이야기 3]

나에게 청소년 심터란?

김○○

안녕하세요? 저는 중장기 쉼터에 지내고 있는 김○○입니다. 저는 벌써 안나의 집 5년차이지만 그중 4년은 중장기 쉼터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듭니다.

전, 가정형편이 어렵고 가족들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가족이 함께 지내지 못하게 되면서 청소년쉼터에 입소를 하게 되었지만, 쉼터에서 형, 동생,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가족 처럼 느껴져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고 어색했던 발걸음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 편하고 즐겁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달라진 것은 선생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하게 되었고 장난도 제법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교도 무사히 잘 다니게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쉼터 생활도 성실히 지내면서 자립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등병의 편지]

박주형 소장님께

오늘은 성탄절.. 군대에서의 첫 크리스마스네요.

저번 주에 보낸 하늘색 편지였던가 잘 받으셨나요?

잘못보낸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고 다른 곳에 보낸거 같기도 해서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아 맞다 군대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해서 암울하거나 웃프진 않아요 오히려 크리스마스여서 편히 쉬기도 하고 먹을 것(군것질)을 박스채로 엄청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간단한 소포는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동기가 받는거 눈으로 확인을 했네요. 월요일부터 사격하는데 은근히 떨리고 재미있을 거 같고 어.. 뭐라해야하지 마치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듯한 느낌이더군요. 이미 공포탄을 체험했고, 이젠 실탄사격이라서 다른때보다 다들 더 진지해졌고 때문에 잘못하고 장난치면 더 엄하게 뭐라하시긴해요. 그리고 아직 안온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재용샘의 펜을 받아보질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료날까지 2주도 채 안남았네요. 주말 제외하고 평일 훈련 받는 날만해서.. 요즘 비가 엄청 많이 오긴 하는거 같던데 오고나서 다음날엔 추워서 죽을꺼 같아요. 귀가 떨어져 나갈 듯한 추위. 그냥 이불속에서만 있고 싶은데 그놈의 훈련이 뭐라고 감기가 걸리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훈련만 열심히 받고 있네요. 어느 날은 아침부터 너무 졸려서 짜증날 때도 있고, 너무 피곤할 때.. 전날 불침번을 한번 서면 녹초가 되어 버려서 하루종일 졸리더군요. 아 수료식날에는 그놈의 피자가 참 먹고 싶더군요. 단거도 엄청 땡기고, 금연이라서 오히려 단거를 많이 먹는거 같고, 입이 심심해서 먹기도 하는데 일단 계속 뭔가가 땡겨서 먹게되네요. 평상시 같은 군것질을 먹지도 않았을텐데 견과류(아몬드)도 엄청 까먹는거 같아요... 아 그리고 실탄사격도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아침에 훈련도 안하고 쉬고 요즘 아주 살맛납니다. 배고픈거 말고 여튼 이제 진짜 얼마 안남아서 그때 웃는 얼굴로 봐요! 그때 미용실도 가야하는데 갈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2016. 12. 25

- 훈련병 이○○ -

[봉사활동 소감문]

“아리움”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김○○

2016년 아리움에 봉사를 자주 다녀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항상 아리움 건물을 지나치며 봐왔지만 그냥 오피스텔인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노인복지시설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 보니 굉장히 넓은 시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을 어떻게 다 청소하나 그런 마음뿐이었지만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겨서 빠르게 청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힘입어 저는 더욱 열심히 청소를 하였습니다. 거기계시는 수녀님이 저에게 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내가 아직 어딘가에 쓸모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괜스레 들기도 했습니다.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님들과 식사를 했을 때는 조금 이곳이 세상과 동떨어졌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외로우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살짝 미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정이 참 많으신 분 들이라 금방 친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찾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봉사하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됐지만 그래도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도움이 되는 일이 있구나 하고 소속감이 느껴져서 보람차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생이 있는 곳에서 봉사해보고 싶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날거 같습니다. 봉사의 참의미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리움”봉사활동을 다녀와서

남○○

그동안 했던 봉사활동은 주로 건물청소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방을 청소를 하였다.

아리움은 성남시에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을 위해 마련된 주거시설이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깨끗해 보여서 별로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방에 들어갔을 때 바닥이 매우 더러워서 놀랐다.

다른 사람이 청소해주지 않으면 그 더러움 속에서 계속 지냈을 것을 생각해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청소를 해줘서 깨끗하게 생활할 것을 생각해보니 다시 마음이 괜찮아졌다.

사실, 어르신들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좀 거북했던 게 사실이다. 아직은 내 마음이 누군가를 돌아보거나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노인은 젊은이의 미래다”라는 문구처럼 봉사활동을 통해 지금 처해진 환경에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면서 준비해 가다 보면 이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앞으로는 조금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을 돌아보고 싶다.

[자원봉사자분의 이야기]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부터 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수학공부 봉사를 하는 김향균입니다. 중장기 식구들의 건강하고 밝은 분위기 덕분에 재미있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저의 가족은 직장 관계로 오랜 기간 미국에 살며 아이들을 키웠는데, 교회에 제가 속한 목장의 식구(한 다섯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의 구역모임과 비슷)가 10여년 넘게 오랜 기간 같이 하며 아이들을 함께 키웠습니다. 본의 아니게 위의 말대로 한 마을이 함께 그 마을안의 아이들을 같이 키우게 된 거지요. 주말마다 대여섯 아이들을 한 차에 태우고, 어느 한집으로 가서 같이 지내거나,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며 부대끼 습니다. 부모로서 제가 제 아이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목장이란 공동체 안에서, 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또는 다른 어른들과 있을 때 저도 모르는 아이의 면을 발견하고 고민했던 순간, 음식 잘하는 부모는 맛난 음식으로, 많이 배운 부모는 가르치는 걸로, 건축하는 분은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것을 직접 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목장안의 우리 아이들은 함께 커 왔습니다. 지금은 모두 성장해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같이 큰 아이들과는 형제 자매 처럼 지냅니다. 또한 목장의 다른 부모들은 서로 이모 고모 삼촌이, 또한 부모들에게 아이들은 조카들이 되었구요.

여기 중장기에서 봉사를 한 것이 얼마 안되지만, 제가 목장 안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술로, 역사로, 음식으로, 또 수학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의 이모 저모를 보고 격려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부대끼며 성장하는 모습 말입니다.

사실 목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커 나온 저희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다른 아이들을 보면, 공부하는 실력이나, 고민하는 거나, 갈등등, 별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저희 아이들은 좀 더 남들을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저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레 도움을 주고, 또 실력이 좋은 아이들은 그대로 또 존경을 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뭐랄까, 건강한 사회구성원이라고 할까요...

제가 여기에서 봉사를 하며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르친 공부로 실력이 많이 향상되거나, 뛰어난 친구가 나온다면 그건 보너스라고 생각하구요. ‘봉사’라고 했는데, 봉사라기 보단 서로에게 주는 선한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중장기에 있는 다른 분들로 부터, 특히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김향균
(수학학습봉사)

[자원봉사자분의 이야기]

“행복해져라”

아주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
 청소년들과 마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흠칫 놀란다.
 내 아이의 청소년기가 힘들어서였을까~
 청소년은 내 옷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일까~
 요즘 들어 새삼 어른들이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한말들이 피부에 와 닿는다
 너무나 빨리 나의 어린 시절이 있었나 싶은 착각이 들만큼 세월이 멀리 와 있
 음에 놀란다.



김 선 자
 (집단프로그램봉사)

마음은 소녀이고 감성도 여리고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건만 나이와 별개로
 아이들과 마주 할 때 마다 어렵고 또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뒤로하고 다만 조용히 그들의 마음을 스트로크
 하려 노력하고 소통의 길을 열어보려하며 날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나 자신이 이로
 하여 행복함을 느낀다.

선생님 오신다고 늦은 시간 학교 공부로 힘들었을 텐데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매만지고 반겨줄 준비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아이들의 순수함에 의욕이 넘친다
 쭈뼛쭈뼛 어색한 만남이지만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주고 잘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성실
 하고 꼼꼼하게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요 그만하면 안될까요”마음도 표현해준다. 조금 더 친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잘할 수 있어, 빨리 끝내고 쉬자” 하며 아이들을 재촉하며 마무리해본다.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잠시잠깐 그아이들의 곁에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각자 나름대로 그 시간을 즐
 겨준 것으로 만족하며 그들과 그시간을 매듭지어본다.

늦은시간 항상 바쁘게 진행하고 부랴부랴 다니느라 예쁜친구들과 간식타임 한번 갖지 못한게 이내 마음이
 걸린다. 나에겐 어려운 대상 청소년이지만 한발한발 다가가 손을 잡아 줄 수있는 시간을 만들어보리라
 마음먹어본다.

2016년이 한달남짓 남았다. 내편이 있는 지금의 행복한 공간에서 마무리잘하고 새로운 내년 맞을 준비
 잘하고 척박한 현실이지만 자신만의 꿈을 성실히 가꾸며 이뤄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그들의 수호천사가 함께
 하리라고 믿으며..

2016.11.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이야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가끔, 현장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는 아이들을 만난다. 내 어렸을 적이 그랬던 것 같다. 평범하지 못했기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던 아이. 처음엔, 나와 꿈이 같은 아이를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아이와 조금만 함께 지내게 되면, 왜 평범하게 사는 것이 한 사람의 꿈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아이들의 등대가 되어 주고 싶다. 먼 길 돌아가지 않도록, 오랫동안 지체하지 않도록,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싶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정재용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서로가 스치며 지나치는 타인이지만, 쉼터라는 공간을 통해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많은 봉사자님을 만나고 함께 일하는 동료 선생님들과 만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

만 5년의 시간을 쉼터에서 보내며 나는 나에게 묻는다.

나는 봉사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로 짧은 글을 마치려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

1월	최광우님100,000/㈜트리마란100,000/윤선님50,000	7월	박선운님20,000/㈜트리마란100,000/박희숙님10,000/김종민님20,000/김동환님30,000
2월	경기도청150,000/이해림님50,000/수정경찰서형사과200,000/㈜트리마란100,000/최광우님100,000/윤선님50,000/김종민님20,000/이태라전사회모금1,275,000	8월	박선운님20,000/㈜트리마란100,000/박희숙님10,000/김종민님20,000/김동환30,000
3월	김동환님300,000/최광우님100,000/㈜트리마란100,000/윤선님50,000/김종민님20,000/김동환님30,000	9월	박선운님20,000/성남시정수과100,000/㈜트리마란100,000/수정경찰서형사과200,000/경기도청150,000/박희숙님10,000/김동환30,000/김종민20,000
4월	㈜트리마란100,000/최광우님100,000/김희정님100,000/신세실님100,000/김종민님20,000/김동환님30,000	10월	박선운님20,000/우리는행성남중앙지점1,000,000/㈜트리마란100,000/문윤희님15,000/김종민20,000/박희숙님10,000
5월	㈜트리마란100,000/김종민20,000	11월	박선운님20,000/㈜트리마란100,000/박희숙님10,000/김종민20,000/김동환60,000
6월	중원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480,000/중원청소년수련관직원320,000/김동환30,000/박선운10,000/㈜트리마란100,000/우리는행성남중앙지점1,000,000/근로복지공단72,300/김동환30,000/김종민20,000/국가장학금460,000	12월	박선운님20,000/㈜트리마란100,000/윤수진님50,000/홍성만님500,000/익명100,000/김정서님50,000/김종민20,000/유영종님100,000/경기도청150,000/동진산업3,000,000/김동환30,000/조내식님10,000

♡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

1월	경기사랑의열매(쌀10KG10포)/퇴소생강○○이모(음료수1박스)/안나의집(쌀10KG10포)/이매동성당(삼겹살파티)/분당자생한방병원(우로건강검진2명)/성남아리움독거노인센터(케이크1박스)/중원구북지지원과(스팸1박스, 참치1박스)
2월	이매동성당(삼겹살파티)/퇴소생강○○친부(상의16벌)/이소정(사과1박스)/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과자60개, 컵라면60개, 멀티라면68개)/성남시정수과(스팸1박스, 참치2박스)/이순자(김치냉장고1대)/정자동주민센터(고춧가루4봉)/푸드머스(곰탕1박스)/안나의집(주부식선물세트5박스)/성남아리움독거노인센터(롤케익2박스)/수정경찰서형사과(굴1박스, 사과1박스)/파파존스코리아(피자8판)/이수빈(피자&치킨8세트)/우리는행(멀치세트1박스)
3월	이순자(브루마블, 은물29세트)/청로청소년쉼터협의회(라면2박스)/이혜민(롤케익1세트)/이매동성당(삼겹살파티)/안나의집(참쌀떡, 두유)
4월	까페미르정현영(케이크1박스)/이매동성당(삼겹살파티)/김미화(아이스크림1박스)/이혜민(도너츠1박스)/이호성(사프스3개)/미소앤에그(계란20알)
5월	안나의집(사골뼈1봉, 스파게티10봉)/이매동성당(삼겹살파티)/홍선근(오페라티켓10매)/미소앤에그(계란20알)
6월	성남키즈(식빵4봉)/이매동성당(삼겹살파티)/미소앤에그(계란20알)
7월	유정영(전기장기1대)/성남시청(제습기1대)/까페미르정현영(케이크1박스)/이매동성당(삼겹살파티)/안나의집(모니터1대)/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컬러링북1세트)/오션오브러브 엔터테인먼트(뮤지컬DVD1세트)
8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벽시계1개)/성남문화재단(에어컨1대, 프린터1대)/까페미르정현영(케이크2박스)/김향균(아이스크림16개)/임성빈(프린터1대, 아이블럭잉크4개)/메세나재단(로이터사진전티켓10장)/미소앤에그(계란20알)/연희테크(이불10개, 베개2개)/안나의집(쌀10kg 5포)/이매동성당(삼겹살파티)
9월	정자동주민센터(쌀10kg1포, 고춧가루1kg1봉)/이매동성당(삼겹살파티)/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물티슈415개)/성남문화재단(미술포스터9매)/안나의집(감줄3kg)/파파존스코리아(피자8판)
10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이드6박스, 파우치9박스, 리조트객실2실)/미소앤에그(계란20알)/이매동성당(삼겹살파티)
11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임신테스트기40개, 부직반창고24개, CD10장)/최동우, 최종우(앳홈세트1박스, 오색정과1박스)/손현진(피자5박스, 치킨5박스)/기독교대한감리회(김치20kg)/삼성전기(김치30kg)/이매동성당(삼겹살파티)
12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김장김치3박스, 쌀10kg10포)/이매동성당(삼겹살파티)/성남시교육청소년과(의류, 운동화)/김복심(대봉감8개)/이호성(치킨4마리)/유봉영(케이크)/박태주(쌀10kg1포)/미소앤에그(계란40알)

♡ 봉사자 소개

수학과외 - 김향균님 / 영어과외 - 김영래, 황예원님 / 논술 - 김혜진, 정민정님 / 학원지원 - 하이스트영어학원, 한수 국어학원
피아노레슨 - 김동민, 김미화님 / 만들기 프로그램 - 김선자, 임희정님 / 개인상담 - 이윤희님 / 미술상담 - 고희원님 / 독서실지원 - 로고스독서실
식사봉사 - 이매동성당 빈첸시오회 / 시설물유지보수 - 이경규님 / 행정봉사 - 이상희님

한 해 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

성남시남자청소년쉼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체육, 미술 등 예체능 활동의 재능나눔, 공부를 지속하기 위한 학습지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기타 행정보조 및 노력봉사를 해주실 봉사자 선생님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일반후원

쉼터를 위해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후원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물품후원

먹거리, 피복, 문구 등 각종 생필품들이 쉼터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21-1372-01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농협 301-0120-4514-21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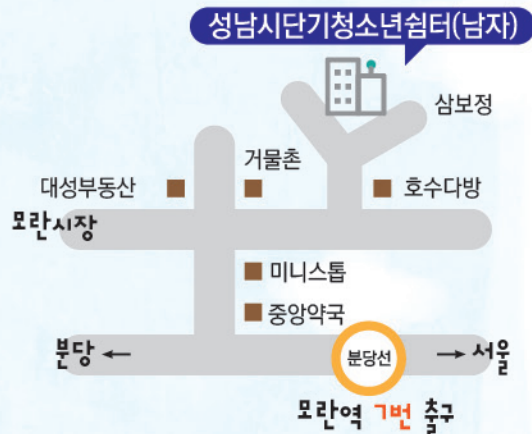
분당선 모란역 7번 출구에서
150m 거리에 위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80번길 12-4
tel. 031)722-6260, 722-6239

fax. 031)756-6239

홈페이지: www.purumi.net

기관메일: purumi2006.naver.com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 (남자)



태평역3번출구에서 버스승차



(구)시청 신흥1동 주민센터 하차

성남시내버스 : 100, 2, 200, 2-1, 220
240, 3-1, 330, 50

서울시내버스 : 302, 303, 407, 462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21-13
(구주소 : 태평2동 3337-2)

tel. 031) 752 - 9050 fax. 031) 758 - 9050

홈페이지: www.bestboy.co.kr

기관메일: jnshimter@hanmail.net

